



일동 성호공원에서 물놀이 중인
이동호(청석초 1년) 어린이와 친구들

안산시 시정소식지 | NO. 443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버스는
희망을 싣고 달리고
아이들은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12차침내,
그 꿈을 찾아갑니다.



‘강남역~대부도’ 구간을
운행하게 되는 2층버스

쓰레기더미에서 꽃과 정원으로 ‘환골탈태’

본오동 시화매립장 부지에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아시아 · 유럽 · 아프리카 · 남미 4대륙 정원… 4년 내 완공

상록구 본오동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조성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6월 22일 오후 3시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아시아 · 유럽 · 아프리카 · 남아메리카 등 전 세계 대륙별 특성을 살린 정원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의 개발여건을 분석해 구상한 안에 따르면, 기존의 틀에 박힌 정원양식에서 벗어나 가족이 다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외국계 거주민들이 많은 안산지역의 특성을 살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향수를 달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공간으로는 가족여가마당, 사계 풍경언덕, 정원박람회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의 지양하고 꽃과 나무가 가득한 숲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정원산업진흥을 위한 플랫폼인 ‘가든마켓’과 ‘정원지원센터’를 만들어 휴식공간을 넘어 정원문화산업의 특화지역으로 개발한다. ‘세계정원 경기가든’은 약 4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 40만㎡ 면적의 안산갈대습지공원과 47만㎡ 규모의 화성비봉습지공원을 연계해 개발할 경우 총 132만㎡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 · 에코벨트가 탄생된다.

구체적으로 ‘유럽’은 정형식 정원+레스토랑, ‘아프리카’는 정원+자연환경놀이터, ‘남아메리카’는 정원+커피전문점, ‘아시아’는 정원+다문화갤러리로 꾸미는 등 각 대륙의 특징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콘텐츠와 결합시킴으로써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또한, 현재 상태를 보존 · 유지 ·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의 변화하는 모습, 즉 환경적 회복과정을 관찰 · 교육할 수 있도록 ‘자연천이구역’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순천만 정원은 111만㎡다.

용역이 완료되면 2018년에 개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2019년 착공, 2021년 내 완공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와 환경문제로 건강과 재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객들에게는 여가와 체험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지과(031-481-2325)

안산시, 2층 버스 개통…‘강남~대부도’ 달린다

평일 3102번 노선 투입… 입석 해소, 휴일 300번… 대부도 관광 활성화



안산시가 2층 버스를 도입했다. 6월 22일부터 3102번과 300번 노선 2대가 운행을 시작했다. 광역버스 입석 해소와 대부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평일에는 안산~서울 강남역을 오가고, 주말에는 안산 중앙역에서 대부도로 관광객을 실어 나른다.

평일에는 고잔푸르지오 6차 아파트를 출발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상록수역~의왕톨

게이트를 거쳐 강남역까지(편도 41.1km) 15개 정류장을 정차하며,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2회 운행한다.

주말에는 중앙역~자유센터~안산역~신길동~대부해안관광본부까지(편도 31km) 정류장 18곳을 정차하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8회 운행한다.

2층 버스는 독일 만(MAN)사 차량으로 1층 12명, 2층 59명 등 71명이 탑승할 수 있다.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출발을 방지하는 세이프티 도어, 천장 비상 탈출구, 긴급 제동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전복 방지 시스템 등의 장치를 갖춰 승객의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교통약자를 배려해 휠체어 전용공간과 도움버튼이 설치돼 있으며 좌석별 독서용 조명,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등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범운행 후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서울 강남으로 버스를 이용해 출 · 퇴근하는 주민들의 입석 문제를 해소하고, 더불어 주말에는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연말까지 2층 버스 4대를 추가로 도입,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95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 洞 행정, ‘맞춤형 복지’ 체계로 전환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복지전담팀’ 신설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각지대 해소, 복지체감도 높인다



안산시가 동(洞) 행정을 복지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개편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활과 밀접한 동을 중심으로 ‘복지 허브화’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먼저, 현재 ‘동 주민센터’로 불리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다. 그만큼 복지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전담팀으로 새롭게 설치한다. 전담팀은 상록구 사동, 일동, 사이동, 본오2동, 부곡동 등 5개, 단원구 고잔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2동 등 4개로 총 9개의 중심동에 신설되며, 사동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동은 인근 일반동의 복지수요까지 처리하는 권역형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사이동은 해양동과 반월동을, 부곡동은 성포동과 안산동을, 선부2동은 선부1동을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다. 더불어 담당 인력 확충을 위해 각 중심동에 계장 1명과 직원 2명을 새로이 배치한다. 특히,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일동, 부곡동, 신길동, 선부2동에

는 사례관리사 한 명도 추가 배치한다. 7월 1일부터 운영되는 전담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하며, 찾아가는 복지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사례관리를 위해 발굴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등 민관협력사업도 함께 한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지난해, 상록구 2곳(본오1동, 월피동)과 단원구 2곳(와동, 선부3동)에서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실질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동 복지 인력은 2~3명에 불과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빈곤위기 가족이 존재하고 있다.”며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접수를 처리하던 곳에서, 먼저 찾아가 대상자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복지대상을 발굴하는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례

· 부양자 없는 독거노인(본오1동) ·

아무런 부양자 없이 평생 미혼으로 살아오며 폐지를 주위 생계를 유지하던 A 어르신은 지저분한 집의 위생적인 문제에 치매까지 앓고 있었음. 이웃 주민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청소와 입원·치료를 지원. 이웃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효과를 본 사례로, 이후 비상 연락체계를 구성해 관심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우울증 겪던 50대 남성(와동) ·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학원을 운영하던 B 씨는 사업실패 후 대리운전 등을 하며 지체장애 5급의 노모와 어렵게 살아가던 중 건강이 악화돼 노숙, 이혼, 자살시도로 이어짐. 주민 의뢰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계해 자립육구 키움. 이후 지역아동센터에서 재능기부로 강의하며 건강도 되찾음. 현재 센터 사무직으로 근무.

안산시, 대부도 모기 ‘박멸’

종합 방제 추진… 주거 및 관광 환경 개선



안산시가 대부도에서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와 관광지로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6월 19일에는 전문가와 주민, 공무원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보건소 기동방역반 5명, 민간용역 2명 등 3개 반 10명으로 확대, 그리고 10월 31일까지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펜션, 민박, 야영장 등 관광

지 350곳의 모기유충 서식지 환경 조사 및 주1회 방역소독을 결정했다. 이외 개인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100개와 펜션 단지 집수정 안전망 200개를 설치하며, 환경적 방제와 모기트랩, 해충기피자동분사기 설치 등 물리적 방제도 병행한다. 6월 20일에는 민·관 합동방역의 날을 정해 습지, 물웅덩이 등에 방역소독을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월 1회 운영된다.

◆ 문 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031-481-3516)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소식通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상생협약… 현재까지 295억 효과

상록구 사동 1639번지 일원에서 공사가 한창인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서 안산시와 시공사인 GS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전체 공사비의 30%를 안산 지역으로 다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안산시는 전체 총 사업비 1조6천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지역에서 사용됨으로써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공사인 GS건설은 지역 내 믿을 만한 업체와 인력을 통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함께 마케팅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다.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GS건설이 안산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면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 총 2,791가 투입됐으며, 공사와 관련해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한 지역 업체만 42개사에 이른다. 또한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1,528명의 노동력이 투입돼 고용창출에도 기여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의식주 등도 지역 내 상권을 이용, 약 1억8천4백만 원 정도를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 문의 : 안산시 마이스산업과(031-481-3051)

2017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내 취업자수 증가율 1위

안산시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1위로 발표됐다.

공공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을 지표로 진행된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안산시는 올해 5월까지 총 12,855명의 취업을 달성,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취업자수 5,004명을 훨씬 능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증가율은 156.89%에 이른다.

2위는 용인시로 108.03%가 증가했으며, 평택시(92.96%)와 수원시(81.35%)가 뒤를 이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후에도 취업자수 유지 및 제고를 위해 업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277)

소상공인 적극 지원 온누리상품권 집중 홍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가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집중홍보에 나선다.

가맹점 안내포스터를 총 1000부 제작하여 점포별로 2~3장을 배포할 예정이며 홍보전단지도 8,000부를 제작 배포한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29)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뚝 달고 순항’…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468억 원 조정 완료

안산시는 지난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468억 원을 조정·확정했다고 밝혔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지역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단지 전환 및 기반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재생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와 산단 진입도로 개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반시설 정비내용은 ▲진입도로 0.77km 신설 ▲주차장 6개소 819면 신설 ▲쌈지공원 4개소 신설 ▲자전거도로 확충 및 도로 보수 29km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기능이 종합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안산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가산업단지 정비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3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위

한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7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생계획 및 재생사업지구가 고시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재생사업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에는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주차장 신설, 자전거도로 확충 등을 우선 추진해 노동자에게 쉼터와 함께 소사~원시선 개통에 발 맞춰 양호한 기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월국가산업단지는 1977년에 착공하여 1987년 조성 완료됐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7월 재생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안산시가 응모하여 2014년 3월 재생사업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문의 : 안산시 산업정책과 (031-481-2856)

안산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폭확대

“쓰면 쓸수록 혜택이 커지는 실속 쇼핑”



최근 안산시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당초 시민시장 1개소였던 사용처를 스타프라자(성포동), 신안프라자·신안코아·월드프라자(본오동) 등 기존 예술광장과 선부광장 주변 상권까지 크게 확

대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늘려나가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지원해 유통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200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으로 액면가의 5%를 할인받아 구입한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지역상권도 살리고 실속 있는 쇼핑으로 가게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안산시는 향후 상점가는 26개 구역, 전통시장은 8개소까지 확대해 안산시 전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많은 시민이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알찬 혜택도 받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가까운 은행에서 개인당 월 3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개인당 월 50만원까지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 (031-481-2829)

안산시, 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할 것”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7년 춘계(春季) 도로정비평가’에서 31개 시·군 중 ‘최우수 그룹’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 동안, 올 상반기 기간 중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각 시·군 도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및 정비 상태를 평가했다.

안산시는 최근 아파트재건축 현장 급증으로 공사차량에 의한 도로파손 및 낙하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형공사 현장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사차량 실명제를 운영했으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도로시설물 상시 순찰시스템을 구축해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로정비평가는 봄과 가을에 걸쳐 총 2회 평가가 이뤄지며, 경기도는 2회 도로정비 실적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한 다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하반기 역시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점검, 유지보수까지 적극 노력해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건설과 (031-481-2434)

안산시, 안산천 · 화정천 악취 해결한다

오염 대비 구조물 설치, 개선제 살포, 청소 등 ‘총력’



매년 여름이면 더욱 심해지는 하천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재 안산에는 안산천과 화정천 두 곳의 생태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각각 11.4km, 11.9km의 산책로와 인공폭포, 분수 등 10개의 수경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안산천 57개, 화정천 52개 등 총 109개의 빗물 토구를 중심으로 하수 슬러지(침전물)가 발생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봄철 가뭄에 따른 물 부족 현상으로 하천 내 수질이 더욱 악화됐으며, 빗물 토구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등 오염 물질 또한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대응에 적극 나섰다. 우선, 빗물 토구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구 내 콘크리트 웨어(weir, 칸막이)를 설치한다. 빗물을 막아 모으는 차집 토구가 설치돼 있는 48개소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 기능과 함께 슬러지의 하천 유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빗물 토구에 쌓여 있는 침전물들을 청소하고 퍼내는 작업을 병행하며,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연결부 개선사업도 시행한다. 현재 단원구 고잔동 은혜와진리 교회 부근에 설치한 연결부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대상지를 넓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하천 바닥의 유기 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해 저질개선제도 살포했다. 안산천 안산15교 하부 1,500㎡ 면적에 수질개선

제 135kg과 저질개선제 165kg을 살포했으며, 생화학적산 소요구량(BOD)과 탁도 면에서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올 가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한다. 현재 시범 시행했던 빗물 토구 칸막이나 저질개선제 살포 등에 대한 효과 분석 후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국·도비의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천 산책로에 주민 편의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월피동 한양1차 아파트 앞 하천 내에 바닥분수 1개소와 하천분수 1개소를 설치, 시민들에게 계절마다 색다른 볼거리와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태하천 수변구역 내 경관 및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물고기가 살아 있는 도심 속 생태학습 체험장과 휴식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건설과(031-481-2424)

각골초등학교, ‘쌀 중심 식습관 교육 학교’ 선정

학생 · 학부모 · 교사, 우리 쌀로 된 아침밥 먹기 운동 펼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기능이 저하돼요.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위장이나 소화기관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요. 영양 불균형이 돼요. 비만의 원인이 돼요.’ 각골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지난 6월 20일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아침밥 먹기 운동을 펼쳤다. ‘건강한 아침식사 에너지 넘치는 하루’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서 아침밥을 먹고 등교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기운의 차이를 말하며 아침 식사의 좋은 점들을 꼽았다.

6학년 박혜인 학생은 “어머니가 아침밥을 챙겨주셔서 꼭 먹고 오는데요. 밥을 먹고 학교에 오면 수업시간에 집중도 잘되고, 속이 든든하니까 점심시간에 과식하지 않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좋아요.”라고 말했다.

학부모회 부모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인절미와 삼각김밥을 만들어 등굣길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다. 5학년 박준기 학생 어머니 최영숙 씨는 “우리 쌀로 만든 밥·죽·떡이 빵이나 시리얼보다 더 좋다.”며 “입 맛 없는 아침, 작은 주먹밥이라도 꼭 먹인 후 보내야 한다.”고 했다.

아토피, 알레르기, 성장기 아동 영양섭취 등 영양상당과

건강교육으로 행사에 함께한 상록수보건소 이성희 영양사는 “아침을 밥으로 먹게 되면 반찬으로 여러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 영양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빵이나 간편식 보다는 우리 쌀밥으로 된 아침식사를 권했다.

한편 각골초등학교는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공모한 ‘쌀 중심 식습관 교육 학교’에 선정 됐다. 이는 줄어드는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각골초는 매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쌀을 주제로 한 시 짓기, 아침밥상 가족모임 그리기, 쌀 요리 레시피 공모전과 아침밥 먹기 운동 소감문 공모전 등을 통해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우리 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김장현 교장은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해 맞벌이 가정은 많은 환경에서 아침식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의 동명칭&관할구역
7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동명칭이 바뀝니다

구분	기존명칭	신명칭
20대구	사1동	사1동
	사2동	사2동
	사3동	매암동
30대구	고잔1동	고잔동
	고잔2동	고잔동

관할구역이 바뀝니다

구분	기존명칭	신명칭
20대구	사1동	사1동
	사2동	사2동
30대구	고잔1동	고잔동
	고잔2동	고잔동

주민센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센터 ‘탄생’ 옛 면사무소 자리… 보물섬으로 이끄는 큰 역할 기대

대부면사무소로 행정기능을 담당했던 공간이 주민의 면면(面, face)을 담아내는 ‘대부도 에코 뮤지엄 거점센터(센터장 이강섭)’로 새롭게 탄생했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건축유산,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 고유의 문화를 보존 계승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박물관 운영에 참여하고,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안산시는 오래된 우체국, 방앗간, 대장간, 면사무소 등 20세기 초·중반의 모습이 남아있는 대부도를 시흥시와 화성시 등 경기만을 잇는 에코뮤지엄으로 지정하고 옛 대부면사무소를 거점센터로 변모시켰다.

대부면사무소는 1934년 한옥양식으로 지어져 1994년까지 약 60년간 면사무소로 쓰이다가 농업유물을 전시하는 역사유물관으로, 다시 문화센터 헬스장으로 사용됐었다. 그러다 2004년 경기도문화재 자료 제127호로 지정됐고, 현재는 문화재 활용 차원을 넘어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강섭 센터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에코뮤지엄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멋진 일”

이라며 “대부지역의 자연환경과 삶의 모습들을 문화유산으로 가꿔나가 대부도 주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도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랑방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화공간 ‘섬자리’의 박진 대표는 대부도가 좋아 일상을 대부도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기획자다. 그는 거점센터 인근에 작은 공간을 마련, 주민들과 프랑스자수를 배워 대부생태자원을 수놓으며, 매주 목요일 한차례는 청년들과 만나 음악을 교류한다.

대부도 주민들로 구성된 거점센터 운영위원회는 영상물복원사업, 에코사랑방, 주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에코시민학교, 인문학 강의, 주민해설사 양성, 전시, 공연을 위한 장소제공 등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예술적 가치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작은 건물 하나의 변모지만 거점센터가 경기만 해양문화를 선도하며 대부도가 보물섬으로 되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 의 : 대부도 에코뮤지엄센터(032-880-9669) 월~금 9~6시, 공휴일 휴무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중앙도서관, 독서 감상문 및 감상화 공개 모집

책 읽는 문화 조성… 15명에게 안산시장상 수여



때 이른 폭염으로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다. 이번 주말엔 더위도 피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나들이 어떨까? 욕심 부려 감상문이나 감상화에도 도전해보자. 덤으로 상까지 따라 올 수 있다.

안산중앙도서관은 범시민 독서운동 ‘2017 안산의 책’과 함께하는 <제21회 안산시 독서 감상문 및 감상화 공개모집>을 9월 29일(금)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스물한 번째를 맞는 이번 공개모집은 2017 안산의 책과 후보도서 총15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017 안산의 책은 시민의 추천과 선호도 투표를

통해 일반과 청소년 부문에 <조선이 버린 천재들(이덕일 저)>, 어린이 부문에 <시간가게(이나영 저)> 등 총 2권이 선정된 바 있다. 안산시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감상문과 감상화는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자료실에 방문, 우편(중앙도서관 3층 사무실)이나 이메일(sethgreen@korea.kr)로 9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들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1명씩, 총 15명에게 안산시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안산시중앙도서관 담당자는 “책 읽는 안산시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마련되는 독서 감상문과 감상화 공개모집에 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안산시중앙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 031)481-3865로 하면 된다.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안산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



안산시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

‘제22회 안산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7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기 기·예 경진대회’ 입상자(시, 수필, 서예, 꽃꽂이, 사군자 부문) 6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또 여성의 인권보호, 지위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 권익 증진과,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을 선발해 안산시여성상을 시상한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유공자도 시상한다. 시상 후 복합화사 안재우, 초대가수 정훈희·김태화 부부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념식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부스를 준비한다.

‘춤추안전망’ 서포터즈 및 상담소 3개소가 참여해 성폭력 예방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 아동안전지도 전시회, 양성평등 가족사진 전시회 부스도 마련한다.

◇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209)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⑦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즐거운 만남이 있는 감성놀이터” ‘미트너’

시각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창작스튜디오

‘미트너(MEET & ER, 대표 원종국)’는 브랜드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편집디자인, 광고, 아트북 등 시각디자인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창작스튜디오다. 준비된 자료를 재배치하는 것이 아닌 예술로서의 순수 창작물과 새로운 디자인을 지향한다.

서울예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작가 3명이 모여 즐거운 만남을 추구하며 소통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자신감 넘치는’ 20~30대의 젊은 감각으로 톡톡 튀는 창의적 기획력은 덤이라고 말한다.

동네를 브랜딩하다!

창업 2년차 미트너는 안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C 제작,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내 창업보육센터 홍보 노트 제작, 월피동 지역 브랜딩(branding)을 위한 월피동 로고와 소식지 기획·제작 등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은 로고가 탄생했다. ‘달드는 언덕’, 월피동 로고는 마을을 품고 있는 달의 형상으로 광덕산, 안산천을 중점적으로 표현했으며, 건물, 환경, 자전거도로의 모습을 더해 재미를 주었다.

브랜딩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을 이미지화하기 위해 광고 등을 통해 상품의 이미지만으로 상품과 회사를 알리는 마케팅의 한 방법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과 욕구가 브랜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 주며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있다.

마을 앞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던 시절, ‘만조가 되면 독이 초승달만큼 남는다’고 했던 표암 강세황의 시에서 유래한 월피동 [月入陂]의 정체성을 담

원 대표는 “브랜드는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나라, 어떤 고유명

사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서울예대 입학의 계기로 온 가족이 안산으로 이사 오면서 월피동에 살게 됐다. 안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우리동네’가 되고 나니 오히려 애착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안산이 예술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창업과 동시에 청년큐브에 입주해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은 물론 함께 입주해 있는 팀과의 협업으로 시너지를 얻으며, 안산 지역의 다양한 사업자들을 즐겁게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는 미트너의 성공을 기원한다.

◇ 문의 : meetner@naver.com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대표 원종국

중·고등학생 댄스팀 ‘라이징 스타’

대한민국 대표로 미국 댄스경연대회 출전

안산 중·고등학생으로 꾸려진 댄스팀 ‘라이징 스타(RISING STAR)’가 ‘월드 오브 댄스 한국 대표 선발전(World Of Dance South Korea Qualifier)’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오는 7월 미국 파이널 무대에 한국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2017 월드 오브 댄스 선발전 예선(비디오 영상)을 통과한 청소년부 25팀 중 당당히 2등을 차지했다. 청소년부는 오직 1등에게만 파이널 무대 진출권이 주어졌으나, 이번에는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얻은 2등 ‘라이징 스타’팀도 특별히 설 수 있도록 했다.

라이징 스타는 남녀 혼성으로 총 12명이 활동중으로,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춤을 시작했고 댄스관련 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다. 매해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재능 기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춤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열정이 가득한 연습실을 찾았다.

Q : ‘월드 오브 댄스 한국 대표 선발전’을 통해 미국에 간다. 어떻게 준비했나?

• 강유진(광덕고3) : 학교 수업이 끝나고 연습한 것은 물론, 일요일이나 휴일에도 연습에 매진했다. 5월 초 연휴기간에는 아침 10시부터 새벽까지 연습에만 매달렸다.

Q : 한국대표로서의 각오나 소감은? 미국에서 해보고 싶은 것은?

• 이수빈(초지고3) :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쁘다. 우리나라 대표로 가는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돌아오겠다.

• 강유진(광덕고3) : 제가 좋아하는 춤으로 가게 되어 감동적이고 의미가 크다. 함께 협력해서 좋은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김정은(송호고1) : 경연대회 잘 마치고 외국인이라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다.

• 허다인(광덕중2) : 타임스퀘어를 가보고 싶고 외국인 친



구를 꼭 만들고 돌아올 생각이다.

Q : 댄스 자랑을 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 강유진(광덕고3) :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춤을 췄다고 부모님한테 들었다. 상 위에 올라가서도 추고 아무데서나 몸을 흔들었다고 한다. 춤을 추면서 기분 표현을 할 수 있고, 춤을 추는 일이 기쁘고 즐거우니 스트레스까지 풀려 좋다. 실용무용과 교수가 되는 게 꿈이다.

• 김정은(송호고1) : 취미로 춤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춤을 잘 추는 무용과 교수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월드 오브 댄스(WOD)는 미국(LA, 보스턴, 하와이), 중국, 일본, 스페인, 런던 등 세계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열리는 글로벌 댄스 대회다.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폭포수가 쏟아지고 분수는 솟구친다, 안산이 시원해진다” 공원 내 분수대 본격 가동... ‘도시숲’과 함께 ‘폭염 극복’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이다. 연일 한낮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며 ‘7월 같은 6월’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땐 물놀이가 최고지만 휴가를 떠나기엔 아직 이르고, 인근 ‘워터파크’라도 다녀오고 싶지만 교통정체 등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보체는 아이들의 열망’을 무시할 수만도 없다. 다행히 안산에는 풍부한 도시숲과 함께 여러 공원들이 존재한다. 특히, 공원 내 마련된 다양한 수경시설(분수, 물놀이장, 도섭지 등)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이에게 기쁨, 가정에는 행복’



안산시는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노적봉공원(성포동 산 39-1)과 반월공원(본오동 723), 성호공원(이동 615)의 수경시설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어 6월 17일부터는 호수공원(사동 1509) 내 도섭지와 연못 내 분수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와동 물놀이장(와동 813-1)과 원고잔공원(고잔동 산 87-3) 바닥분수도 가동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경시설에 대해 소개한다.

노적봉공원

자연석으로 다시 태어난 폭포의 절경



뜨거운 여름이면 노적봉공원 폭포 옆 물놀이장은 아이들의 천국이 된다. 맷돌에서 콧물처럼 쏟아져 나온 물이 구불구불 ‘S’자 형태로 흐른다. 맷돌 주변에 둘러서서 컵에 물을 받는 아이들의 표정은 흡사 생명을 받듯 진지하다. 징검다리위를 걷고, 바닥에 드러눕기도 하면서 실

컷 물놀이를 한 아이들이 벗어놓은 옷가지가 벤치에 가득하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옷가지가 마르는 동안 가족들이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자연석 폭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절경이자 휴식처.

i 5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7월 22일부터 8월 27일 방학기간에는 매일 / 10:00~17:00

나도 한마디 · 김재원(부곡초 3년)

“친구들 다섯 명과 집에서 놀다가 방방(트램폴린) 타고 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들렀어요. 어제도 여기서 놀다 갔는데, 친구들과 함께 오니 더 신나요. 멀리 워터파크 같은 데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엄마는 갈아입을 옷을 안 가져왔다고 걱정하시지만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마르겠죠?”



성호공원 도섭지

물장구치며 태양과 맞서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주말, 안산식물원 옆 주차장이 몸살을 앓는다. 성호기념관 뒤쪽 광장이 시골벽적이다. 아이들이 뜨거운 태양을 맞닥뜨리며 물장구치며 노는 소리다. 원형과 사각형 물놀이장을 오가며 분수의 물줄기를 잡고 물싸움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더없이 밝

다. 나무그늘에 자리한 어른들은 개울가에서의 옛 추억을 회상하며 한가로이 오후를 보내고 있다.

i 5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방학기간에는 매일 / 10:00~17:00

나도 한마디 · 이동호(청석초 1년)와 친구들.

“재미있어요. 물도 따뜻하고, 떨어지는 물방울도 시원해요. 친구들과 매일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 때 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데가 자주 변하는데 그걸 따라 다니는 거예요. 신나요!”



나도 한마디 · 안유건(6세, 본오동)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이런 곳이 있어서 좋아요! 빨간 우산 폭포 아래 누워서 눈 감고 물방울 맞으면 엄청 시원해요.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저랑 같이 폭포 아래 누워보실래요?”



*도섭지[wading pool, 徒涉池] : 아동용의 물놀이를 대상으로 한 얇은 연못의 일종으로 위험이 적고 여름에 최적격의 놀이터가 됨.

성호공원 바닥분수

물의 리듬에 몸을 맡긴다



메타세쿼이아가 줄지어 보초를 서는 산책로 안쪽으로 바닥분수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른다. 푸른 잔디 위에서 조각 작품들도 잠시 쉬어가라고 말을 건네는 곳. 여벌옷이 없는 산책객들은 체스를 하듯 언제 솟아오를지 모를 물줄기들과 '밀당(밀고 당기기)'을 한다. 신발을 벗고 한발,

다시 두 발짝, 살금살금 구멍 사이로 건다가 어느새 물벼락을 맞는다. 아이도, 어른도 한번 들어오면 아예 물의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는 매력 넘치는 곳이다.

i 5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 매일
10:00~17:00(매시 정각에 20분 가동)

호수공원 도섬지

안개비 사이로 보이는 무지개



드넓은 광장, 씩씩하게 솟는 분수. 흘러지는 안개비 사이로 '무지개'를 만나 볼 수 있는 곳. 초록으로 숨 쉬는 숲속의 물 정원이다. 생태습지를 걸어 들어와야 만날 수 있어 '도시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여행 온 느낌'이 든다. 초목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자유로움을 준다. 광장을 둘러싼 습지에 새, 잠자리, 나비, 거미, 개구리와 같은 생태를 같이 하는 '생명들'이 많으니 '돛자리'와 '잠자리채'를 들고 '자연이 선물하는 여름'을 즐겨보자.

i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13:00~15:00

호수공원 연못 내 분수

갈대로 둘러싸인 연못



한가로운 마음으로 싱그러운 초목과 축축한 물길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도로와 떨어져 있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를 마주 할 수 있다. 갈대로 둘러싸인 연못 가운데 솟아나는 분수가 시원하다. 흘러지는 물방울들이 더위를 식혀준다. 연못을 따라 산책로를 걸으면,

바람에 살랑거리는 갈대소리와 작은 새들의 속닥거림이 '평화로움'으로 인도한다. 연못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벤치와 운동기구, 커다란 나무그늘이 있어 가볍게 '피서' 떠나기 딱 좋은 곳.

i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매일
10:00~12:00, 13:00~15:00, 16:00~18:00

반월 공원 도섬지

춤 추듯 올라오는 바닥분수



가족을 위한, 가족에 의한, 가족의 여름 놀이터. 멀리 수영장을 갈 필요 없이 '반월공원' 하나면 족하다. 발목까지 오는 물에, 춤을 추듯 올라오는 바닥분수, 안개 분사 터널, 우산 폭포 까지 '키즈 스파'를 방불케 하는 시설이 안산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넓은 차광막과 안

전 요원까지 있어 가족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다. 비치볼과 물총만 챙긴다면 그야말로 물놀이 천국!

i 5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매일 / 10:00~17:00

사진 _ 김진국 명예기자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市, '안산 숲 활동가' 모집 · 교육

'도시숲'이 주는 휴양의 가치를 밝힐 전문가 양성

숲을 친근하게 이해하고,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안산 숲 활동가'를 모집 · 교육한다. 숲의 도시 안산을 이끌어가기 위한 '도시 숲' 교육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 안산 숲 활동가 과정은 유아, 청소년, 중장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체험 · 치유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호수공원, 갈대습지공원, 대부도 등과 같은 안산의 대표적 생태 현장에서 진행되며, 안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시연될 예정이다. 안산 숲 현장 프로그램 뿐 아니라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작성, 연간 교안 만들기 등 실전 · 실무 교육도 포함돼 있다.

교육시간은 주2회(10시~13시)로 8주 동안 총 15회로 진행되며, 참여대상은 생태교육 자격증(자연환경해설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생태체험지도사 등)을 소지한

안산시민으로 60명이다. 1기는 6월 13일 개강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2기 접수는 7월 말경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녹지과 팩스(031-481-3209)로 접수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안만홍 도시숲센터장은 "안산은 숲의 도시다. '도시숲'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안산의 숲이 시민에게 주는 첫 번째 가치는 '자연과 공생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적 가치'이며 두 번째는 '자연이 주는 휴양으로써의 가치'이다. 안산 숲 활동가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숲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연의 덕목을 배우며, 곁에서 살아가는 생명들과 함께 휴식하는 경험들을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 교육생은 "안산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안산의 자연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나가,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지과(031-481-2409)
김희경 명예기자 kepa-korea@hanmail.net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한 '화랑피크닉' 슬픔의 공간을 넘어 삶과 희망의 공간으로



화창한 일요일 오후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 옆 잔디밭은 삶과 놀이의 공간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하늘하늘한 천이 휘날리는 바람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나무그늘 돛자리에 앉아 한가하게 재즈공연을 즐겼다. 6월 18일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한 '화랑피크닉'은 화랑유원지가 슬픔의 공간을 넘어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꽃, 공연, 놀이, 책 피크닉 파트로 나뉜 행사는 화랑유원지를 찾은 가족단위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일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린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미니꽃다발과 나비를 꾸미고, 버려진 장난감으로 공원모형을 만들었으며, 바람 놀이터에서 하늘거리는 천을 만지며 뛰어놀았다. 가족들과 돛자리에 모여앉아 그림책을 보거나, 팝업북 인

형극을 관람하고, 재즈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다.

세월호 가족들이 운영하는 416공방에선 직접 만든 공예작품을 전시했고, 천연미스트, 매듭공예, 양말목 냄비받침, 파우치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준비했다. 세월호 가족들이 공예품 만드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소통했다.

요즘 세월호 가족들은 마을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한창 진행 중이다. 6월에는 와동, 고잔동, 선부3동 마을을 돌며 '마을에서 함께하장'이라는 마을잔치를 열어 동네 주민들과 음식과 재능을 나누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추모분과장 '성빈엄마' 김미현 씨는 "2015년 가을부터 지역주민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엄마랑 함께하장' 같은 마을행사를 준비, 매년 지역 복지기관에 후원하는 등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행사도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공동체 가치를 함께 기억하고 나누기 위해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에 던진 교훈이 가치 있게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416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416안전공원 조감도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전문가들이 가안으로 만든 416안전공원 조감도에는 수많은 나무들에 둘러싸인 온실정원과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지하에 설치된 빛 모양의 추모시설이 보였다. 김미현 씨는 "416안전공원이 단순히 아이들을 기억하는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의 가치를 다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길" 희망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시민의 손으로 만든 '4.16조례' 발의 '생명과 안전의 도시' 수립 ·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시를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로 만들려는 4.16조례가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세월호는 한국사회가 압축한 부조리와 병폐를 직면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은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16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려는 안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4.16조례 제정 운동으로 모아졌다.

안산시 64개 단체로 구성된 4.16안산시민연대는 2015년 10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설명회 등을 거쳐 4.16참사와 관련된 조례안을 마련했다. 5개장 25

개 조항으로 구성된 4.16조례의 정식명칭은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다. 조례에는 생명과 안전, 인권, 정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4.16정신을 도시비전으로 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안산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4.16참사 극복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기록 보존, 추모사업 전개, 진실규명 및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조항이 있고, 4.16정신 계승을 위해 기념일 지정, 4.16교육 추진 조항도 있다. 또, 실질적인 추진협의체로 안산 내 다양한 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16조례는 조례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주민발의로 진행된다. 청구요건을 만족하려면 19세 이상 안산시민 100분의1(5,62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6월16일 기준 5,400여명의 청구인이 모집됐다.

4.16안산시민연대 관계자는 "7월 3일까지 최소 3천명 이상의 추가 청구인을 모집해 제출할 계획인데, 중복 · 정보오류 등 20% 이상 무효서명으로 분류될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주말마다 여러 행사장을 돌며 서명을 받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4.16조례 전문 마지막 구절을 소개한다. "조례로 응집된 시민의 힘이 안산시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4.16 참사와 희생을 기리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 문의 : 4.16안산시민연대(031-483-0416)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17 진로페스티벌

‘진로와 함께 놀자!’… 미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미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로를 찾아 축제를 열다! 다양한 직업 전문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열렸다. 6월 17일 안산시청소년수련관(관장 김낙준)은 성포동 수련관 앞마당에서 ‘2017 진로페스티벌 <진로와 함께 놀자>’를 개최했다.

꿈을 찾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직업군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진로탐색 부스’,

밴드, 댄스, 보컬, 힙합 등의 ‘청소년동아리 예술 공연’, 미술, 과학, 역사, 자원봉사 동아리의 ‘교육 체험마당’으로 나뉘어 ‘안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과 연계·진행됐다.

진로체험부스는 진로유형을 찾아보는 진로검사, 해군2함대 2군수전대의 직업해군, 그림으로 심리를 풀어가는 미술심리상담사, 나만의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 내는 조향사, 제과제빵사, 플로리스트, 생명공학자, 드론 조종사, 쇼콜라티에(초콜릿 아티스트), 청소년지도



사, 예절지도자, 건강관리사, 치과위생사, 캘리그래퍼, 바리스타 등의 다양한 직업 체험이 마련됐다.

이날 축제에 참여한 조승해(초지고 2년) 학생은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직업인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도움이 됐다. 막연히 그 직업에서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안산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직

업관 형성 및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직업체험, 진로교육,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나눔 직업체험, 진로검사 및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문의 :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031-412-1724)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2017 아세안 스쿨투어’

진로문화체험, 20개교 700여 명 참가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영선)와 함께 하는 ‘2017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이 6월 1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열렸다.

한-아세안센터와 안산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프

로그램은 대한민국 최대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0개 중학교에서 700여 명이 참가했다. 주한 아세안 대사 및 외교관과 함께하는 아세안 토크쇼, 골든벨 퀴즈, 부스 체험, 전통공연, 패션쇼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달맞이극장은 안산 청소년들의 힘찬 함성으로 가득했다. “동아리에서 영어 단어 하나 더 보는 것보다 이번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게 더 뜻깊고 유익할 거 같아 참가하게 됐다.”는 양승헌·신승학(안산고 3학년) 학생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며 쏟아내는 함성이 뜨겁고 아름다웠다.

각국 대사와의 토크쇼에서는 외교관 진로 및 국제기구 직업 탐구, 각 나라의 특징 및 전통 문화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사관들은 앞으로 10년 후면 직업인의 자리에 서게 될 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만 직업을 찾을 게 아니라 아세안 여러 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영어의 중요성과 함께 “큰 꿈을 꿀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골든벨을 통해서도 아세안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했고, 각 나라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며 끼를 마음껏 펼치는 열정의 무대였던 패션쇼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로비에서는 ‘아세안 문화관광 사진전’이 오는 7월 2일까지 열린다. 2017년 아세안 창설 50주년과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며 개최한 ‘아세안 문화관광 사진 공모전’ 수상작 55점이 아세안의 ‘자연’, ‘문화유산’, ‘사람들과 일상’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전시된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안산 중학생들이 아세안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아세안의 문화를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다문화 사회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3)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문화재단 ‘청년아트’

청년들이 만드는 예술지도, ‘맵 북’



안산문화재단에서 ‘청년아트’ 사업으로 안산의 예술지도 <맵북(Map book)> 만들기에 도전한다. 2015년 <예네들? 예네들!>, 2016년 <양동파티>에 이어 올해로 3번째다. 지난 사업과 조금 다른 점은 안산에 사는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발굴하고 취재해 ‘맵 북’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총 23명의 안산 예술가들이 작업에 자원했으며, 이들은 음악, 무용,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 사진, 도예, 식물공방 아티스트,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다. 자원한 예술인들은 6월 5일 첫 모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과 강연 등 미리 준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 이후 참여 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작업 방식부터 프로그램 계획까지 토론을 통해 만들어냈다.

실제로 작은 음악회, 아트 마켓 등의 아이디어들이 그 공간에서 나왔다. 청년아트에 참여한 김 모(고잔동) 씨는 “안산의 여러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즐거웠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만든 ‘맵 북’은 안산의 문화예술인들과 기관에 배포된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안산을 거점으로 교류를 시작할 수 있길 기대한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기획홍보부(031-481-4044)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2017 거리로 나온 예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휴식하는 예술 공연' 선보여



아직도 예술이 멀게만 느껴지는가?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갈고 닦은 끼로' 미소와 휴식을 선물하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을 만나보라!
매주 수요일 저녁, 안산의 '이곳저곳 거리'에 예술가들이 나타난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예술가들이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안산시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겐 무대를 제공한다. 또한, 상권이 몰려있는 곳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도 담고 있

다. 지난 5월, '예술이' '거리로' 나왔다.

이 프로젝트는 매주 수요일 18:30~19:30까지, 안산문화광장, 상록수역 앞, 중앙역 앞, 호수공원, 문화예술의 전당 앞 등 시민들이 모이는 다중 밀집지역이나 상권 활성화 지역, 관광 및 시민 휴식공간에서 열린다.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 추진하여 문화광장에서 진행된다.

6월 14일 상록수역 앞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의 현장을 찾았다. 1부는 가수 현강과 정현아의 맛깔 나는 트로트무대로 채워져 시민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2부는 권정미무용단의 발리댄스가 펼쳐졌다. 특히 초등학교 댄서들의 열정적인 무대는 '꿈을 찾아 바쁘게 거리를 걷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박영진(사동, 59세) 씨는 "해가 저물면서 붉게 빛나는 하늘을 보고, 시원한 바람 맞으며 음악을 들으니,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 같네요. 무심코 지나치려 했는데, 큰 응원을 받고 갑니다."라고 말했다.

공연을 준비한 한세국제무용협회 권정미 회장은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을 향하던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많은 박수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겠습니다."라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068)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2017 안산 국제누드드로잉 아트페어'

'아웃사이드 오브 에덴' 展, 한·일 작가 200명 참여



6월 20일 단원미술관에서 '2017 안산 국제누드드로잉 아트페어(이하 누드아트페어)'가 개막했다. 누드아트페어는 지역미술이 한없이 열악했던 1999년에 김용호 화백이 처음 시작한 전시회다. 17년 전, 안산에서 단일장르로 개최된 누드드로잉 전시는 안산이 누드드로잉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단초가 되었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미술축전'에 특별 전시로 채택되기도 했다.

올해 18회를 맞는 누드아트페어 부제는 '아웃사이드 오브 에덴(Outside of Eden)'이다. 한·일 작가 200명이 참여해 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감상과 작품 구입이 자유로운 아트페어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부는 단원미술관에서, 2부는 정문규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전시 외에 드로잉 퍼포먼스와 다섯 차례의 공개누드크로키 시연 등 관객 중심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개막식 날, 단원미술관 전시실에서는 공개누드크로키 시연과 초대 작가 이시다 세이시(Ishida Seishi, 일본)의 드로잉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남녀모델이 등장한 후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몸의 곡선을 빠르게 드로잉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초대 작가 이시다 세이시가 전지에 그려내는 굵고 가는 선들은 담백하면서도 역동적이었다.

홍경표 씨(서울 압구정동)는 "올해 세 번째 참여했어요. 모델과 함께 호흡하며 교감하는 순간 자체가 예술이며 누드드로잉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의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총감독 김용호 화백은 "7월 1일과 15일 오후 4시에 정문규미술관에서 공개누드크로키를 진행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누드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예술로 교감하기 바란다."고 했다.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정문규미술관에서 2부 전시와 함께 '사제의 아름다운 동행展'도 열린다.

◇ 문의 : <http://www.chungmuseum.org>, 032-881-2753, 감독 김용호 010-6325-6370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단원미술관 기획전

'빛*소리로 물들다'... 미디어 아트 전시



장경애, 빛-숨, 쉬다

김기철, Bumbershoot

단원미술관은 7월과 8월 한여름에 진행하는 기획전으로 미디어 아트 전시 '빛*소리로 물들다'를 개최한다.

단원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미디어아트 전시 '빛*소리로 물들다'는 라이트 아트와 사운드 아트를 기반으로 10명의 작가들과 미디어아트 전문 기관인 아트센터 '나비(E.Lab)'가 참여한다.

'빛과 소리로 그리는 이야기'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동시대 다양한 형식의 조형언어와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관객 참여형 작품들을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단원미술관 1관과 2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단원미술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동시대 다양한 형식의 미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열린 문화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시는 오는 7월 8일 오픈하여 8월 22일까지 진행하며,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관람가능하다. 관람료는 유료(2,000원, 안산시민은 1,000원)다.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8)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이주민 · 선주민이 아닌 우리 모두 지구인! “마을 라디오방송, 함께 만드실래요?”



안산역 맞은편 휴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라디오제작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안산의 이주민이든, 선주민이든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이 교육은 총 7회로 구성됐다. 매시간 강연과 제작을 함께 해 방송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직접 방송을 만들어 내는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다. 안산은 국내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다. 마을미디어 활동이 자리를 잡고 활성화된다면, 서로 분리되어 있던 안산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언어 ·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소통 방식과 그 표현 양식이 존중되는 마을미디어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전계명(신길동) 씨는 “동화구현으로 라디오를 만들고 싶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재밌게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안산 이주민 청년들의 쉼터이자 교육공간인 ‘지구인의 정류장’과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의 다양한 독서활동이 이루어지는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함께 주관하고 있다.

◇ 문의 : (010-5436-2767 정혜실)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안산시 2018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 반영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들려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2018년 안산시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에 의거한다. 6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5개 부문 20문항을 묻는 조사에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내용은 2018년도 예산의 ▶편성 방향 ▶최우선 투자분야, 일자리정책과제 ▶교육 · 문화 · 생태환경 · 복지 · 보건 · 교통 · 경제 · 환경개선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이다. 또한 시가 도입 ·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묻는다. 시 발전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나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주관식 자유기재 1문항도 마련됐다. 설문은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시청이나 상록 · 단원 양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 준비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간편 접속해 응할 수 있다. 오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중앙역, 상록수역, 이마트 초지점, 홈플러스 성포점에서 하루씩 돌아가며 설문내용 게시판에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 주민참여예산 홍보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안산 경실련이 함께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의견을 주신 최우선 과제에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많은 참여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예산과(031-481-3028)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오는 30일까지 2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진행 박영근 예결위원장 “재정 운영의 효율성 높이겠다”



제239회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 제1차 정례회가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24일 동안 진행된다. 본회의에 따르면 의회는 8일부터 16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 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9일부터 22일까지는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영근(위원장), 이상숙(간사), 김진희, 박은경, 전준호, 정승현, 신성철 의원을 선임했으며,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2016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안’,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6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뒤,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회기 동안 심사했던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앞서서는 신성철 의원이 시 집행부가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농가 가뭄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민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날부터 개최되는 정례회에

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결산 검사 등 많은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예산이 적법한 방법으로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지 꼼꼼히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박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료 예결위원들과 협력해 전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살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 개최를 알리는 ‘소통콘서트’에는 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 및 내국인 가정 아동들로 꾸려진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이 멋진 하모니로 ‘고향의 봄’과 ‘아리랑’을 참석자들에게 선사해 호평을 받았다.



술이랑 관상동맥질환이랑? 적당한 술의 양은?



술직히 적당한 양의 음주는, 심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지질단백(LDL)을 약 12% 정도나 증가시키며, 인슐린 매개 포도당 세포내 흡수를 향상시켜 혈당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다. 이외에도 알코올은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 즉 항혈전 작용이 있어 음주는 분명 심혈관계 보호효과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소량인 경우에 국한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1991년 미국 CBS 방송의 인기 장수 프로그램인 '60분(Minutes)'에 '프렌치 패러독스(French paradox)' 편이 방송된 후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서양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관상동맥질환에 관한 것으로, 미국인에 비해 프랑스인이 포화지방산을 더 많이 섭취함에도 심혈관계통 질환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주된 내용이었다.

올리브유를 주로 쓰는 조리 방법이라든지 미국인들과는 다른 식습관 등과 더불어 프랑스인들이 항상 마시는 적포도주에 포함된 여러 항산화물질들이 심혈관계 보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고 이후 포도주 소비가 늘어난 적도 있다. 그러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음료 등에도 적포도주만큼의 항산화제가 포함되어있으므로, 꼭 포도주의 항산화제가 심혈관을 보호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술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음주량과 빈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몸에 이로운 술의 양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술의 단위(잔)는 양주 1온스로 표시되며 양주의 알코올 함량을 45%로 볼 때 1온스는 13.5g의 알코올에 해당한다. 하루 양주 두 잔, 즉 알코올 30g 정도를 적당한 양으로 보고 있다. 즉, 적당한 양의 술(알코올 30g)이란, 위스키 2잔, 소주(22%)는 3~4잔(2홉의 반병), 맥주(4%) 작은 것 1병(두 잔), 포도주(12.5%) 2~3잔, 그리고 폭탄주의 경우는 딱 1잔 정도이다.

심장내과전문의 이호준

안산시, 방문건강관리 지원팀 구성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폭염 적극 대비



올 여름은 평균기온이 23.6℃ 이상으로 예년보다 높고, 비가 적어 무더위가 예상된다. 이미 지난 5월에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운 날씨를 보인 날도 여러 날 있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6월에도 한낮의 더위는 건강한 젊은이조차 지치게 한다.

안산시는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지원팀(팀장 이숙희)을 구성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의료 인력이 방문해 건강을 체크하고, 고 위험 허약 어르신에게는 영양제와 영양식을 지원한다. 또한 폭염 대응 요령을 알려드리며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필 계획이다. 또한 협약을 맺은 복지관과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손길이 닿지 않는 홀몸어르신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숙희 팀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중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만큼, 어르신들이 폭염에 노출돼 건강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사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 등지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더위 쉼터는 동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주변에 마련돼 있다. 또, 폭염에 의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119나 129로 연락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031-481-351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건강걷기교실

1주에 5일 이상 30분씩 "함께 걸어요"



덥다고 축축 늘어지지만 말고 적당한 운동으로 여름 건강을 챙겨보자.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이웃과 부담 없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상록수보건소는 오는 10월까지 '1530 안산 건강걷기교실(이하 걷기교실)'을 운영한다. 바쁜 생활로 운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학교운동장과 트레킹 길을 활용해 건강을 도모한다.

걷기교실에는 걷기지도자가 배치된다. 상록수보건소는 안산시체조협회 회원 및 지역주민 28명을 모집해 3월부터 한양대학교 예체능대학 교수의 지도를 받도록 했으며, 스트레칭과 걷기기본자세, 걷기자세 교정, 바른 걷기 등의 교육을 수료한 이들을 '1530 안산 걷기지도자'로 위촉했다. 지도자들은 상록트레킹 길 걷기코스로 선정된 안산천길, 노적봉길, 황토십리길, 성호공원길, 갈대습지길, 수변공원길 6곳에 배치, 일정표에 따라 시민과 함께 걷기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7월부터는 지역 내 학교 3개소(팔곡초, 정재초, 성호중)에서도 화, 목요일 저녁 8시~9시 야간 걷기교실을 시작한다. 수시 접수 가능하며 접수자에게 운동참여 문자를 발송해준다.

'1530'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1주에 5일 이상, 한번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건소는 걷기지도자의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건강 걷기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문의 : 안산시 상록보건소(031-481-5925)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amil.net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산은?

제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사회는 구성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변모할 것이며, 지난해 3월 인간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보듯이, 보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 머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수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들은 범국가적으로 그리고 도시단위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시단위에서 안산의 경우, 국내 도시 중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비교적 잘 대비하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제조업 중심이지만 노후화된 안산스마트허브의 재생·혁신과 구조고도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이나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의 모습이다.

전통제조업과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구현으로 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원가절감, 매출 및 이익 증대, 노동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관련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한편, 전통제조업의 저숙련 단순노동자, 중급 수준의 숙련이 필요한 반복 업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이로 인해 고용 불안정, 노동자들 간의 빈부 격차, 도시 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도시생태계에서 최대한 적용하여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숲의 형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포함한 도시를 형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소 간 상호 연결을 통해 통합과 융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안산스마트허브의 전통제조업 혁신,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포함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교육과 연구개발(R&D) 등 소프트웨어 강화, 안산시민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안산시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산·학·민·관' 융합 복합체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삶의 질 및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숲의 도시 안산'의 성공 조건이 될 것이다.

●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송창식 박사(도시 및 공공정책학)



사람 사는 향기가 넘치는 안산시민들

"안녕하세요? 저는 OO동에 사는 주민 000인데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아파트를 잘 돌봐주신 OO동 경비아저씨가 얼마 후 저희 곁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아들네를 따라 이사를 가신다 하시네요.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시고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거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자그마한 이별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달 20일(토요일) 오후 3시에 경비실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오니 작별인사 나누고 싶은 분들은 경비실 앞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고마운 마음이라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사동에 산다. 한 달 전이었던 지난 5월, 고잔동에 사는 동생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본 그 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에 붙은 소박한 편지글. 거기 사는 어떤 주부가 A4지 종이 한 장에 써서 붙인 내용이었다. 글을 읽으면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참 정이 넘치는 아파트였다. 이런 주민들도 있었다니...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외지인인 나조차도 잔잔한 감동을 느꼈다.

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그 편지 이야기를 건넸더니 동생 부부도 알고 있었다. 빙그레 웃던 동생은 그 경비아저씨가 올해 67세이시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워낙 품성도 바른 데다 아파트 아이들을 손주처럼 참 잘 돌봐주시고, 친절이 몸에 배어 있으셔서 주민들도 친부모처럼 대하던 분이이라 했다.

그런 분이 떠난다기에 "제주로 가시거들랑 건강하게 사시라"는 뜻에 몇몇 사람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담아 셔츠 한 장과 구두 한 켤레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요즘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일명 '갑질'을 하거나 막대한 일, 혹은 함부로 해고하는 일 등 때문에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경비원들은 마음에 지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해 견디지 못한 채 떠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안산에는 이런 아파트 주민들도 있다니... 삭막한 도시, 같은 층 바로 옆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도시의 아파트인데, 안산시민들 사이에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아 돌아오는 길 내 달콤한 컷노래가 절로 나왔다.

● 권혁조(상록구 사동)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수박의 효능

- **신경안정** : 콜린 성분(비타민 A, B, C)이 풍부하여 뇌 기능의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이어서 숙면에 좋고, 또한,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 **갈증해소 및 이뇨작용** : 수박에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갈증해소 및 소변을 잘 배출해주며, 또한, 피부보호와 노화방지에도 효과적 이어서, 피부 탄력을 회복 시켜 준다는 점이 있다.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 검은색 줄무늬가 선명하고 진한 것이 좋습니다.

- 통통통! 고운소리~ 맑은소리~ 가 나는 것이 신선합니다.

- 수박 배꼽이 작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 도매시장의 수박 거래가격(2017.6.19(월)기준) :

10kg 11,000~14,000원(매일 거래가격 변동됨)

수박 요리 종류

- 수박샐러드, 수박화채, 수박 빙수, 등.

커다란 꿀맛 수박!!!
안산시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6월
수박



2017년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 참여 안내

- ◇ 기 간 : 2017. 6. ~ 11.
- ◇ 대 상 : 공동주택 거주 세대(선착순 접수 · 시공)
- ◇ 내 용 : 세대별 가정 형광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 보급
※ 기존 LED 등기구 교체가정은 지원 불가
- ◇ 지원예시(보조금은 세대별 최대 12만원 지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80%)
	도비(10%)	시비(10%)	
500,000원	50,000원	50,000원	400,000원
600,000원	60,000원	60,000원	480,000원 지원기준(안)
700,000원	60,000원	60,000원	580,000원

- ◇ 문 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031-481-2927)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155)
※ 신청서 양식 : 관리사무소에서 직접수령 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www.ggenergy.or.kr) 공지사항 다운

노인취업상담 및 무료 취업알선



- ◇ 신청접수 : 수시접수
(월~금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 ◇ 구직대상 : 만60세이상(남여 구분 없음)
- ◇ 주요직종 : 주차관리/가사돌보미/미화원/경비원/생산직/영선/조리사/주유원/기타서비스
- ◇ 접수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취업센터에 방문접수
- ◇ 접수장소 : 대한노인회 안산단원구지회 취업지원센터
선부동 단원구노인복지관내 2층
- ◇ 문 의 : 031-403-8787

회전교차로 이렇게 이용하세요!!

- ①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세요.
- ② 회전교차로는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하세요.
(회전차량 우선)
- ③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하세요.
- ④ 화물차량은 중대형 화물차와 버스만 이용하며 승용차는 이용할 수 없어요.
- 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 ·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 ⑥ 회전교차로에서 진출 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국제교육원 2017년 한국어 정규과정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 ◇ 수업기간 : 9/11(월) ~ 11/24(금)
- ◇ 등록 기간 : 7/3(월) ~ 8/11(금)
- ◇ 수업 내용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수준별 교실 수업 및 한국 문화체험
- ◇ 수업료(정규반 10주 과정) : 1,250,000원
- ◇ 문 의 : 박초록 직원 (영어 • 031-400-5842)
장찬영 직원 (중국어 • 031-400-5847)
- ◇ 홈페이지 : <http://ericaie.hanyang.ac.kr>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장인 난타교실 운영

- ◇ 시 간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8시
- ◇ 대 상 : 퇴근후 취미생활을 갖고 싶은 안산 거주 직장인
- ◇ 문 의 : 유지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031-411-8445~6)

안산시 시정소식지 'برا보안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월 2회에서 1회 발행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5일쯤,
보다 알차고 풍부한 내용의
나아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책 읽는 안산 / 6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여름에 읽기 좋은 책』

아동



술직하면 안돼?

저자 도나 W. 언하트 / 출판사 풀빛

이 책은 '정직'이라는 윤리적 신념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표정이 따뜻한 색감으로 잘 표현된 유쾌한 그림책입니다.

청소년



세븐틴 세븐틴

저자 이옥수 / 출판사 사계절

열일곱 살은 세상을 충만한 감성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세븐틴 세븐틴>은 우리 청소년 문학의 출발을 연 사계절1318문고의 100번째 책을 기념하는 책으로 그동안 이 시리즈에서 작품을 펴낸 대표적인 작가 여덟 명이 참여한 단편집입니다. 작가들은 어른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청소년 시기의 찬란한 슬픔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인



하워드의 선물

저자 에릭 시노웨이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고의 교수인 하워드 스티븐슨이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팡대는 독자들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를 전해준다. 하워드 스티븐슨을 인생의 또 다른 아버지로 여겼던 제자 에릭 시노웨이와 하워드가 수년 동안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 에릭이 느낀 감동뿐만 아니라 그가 노교수에게 전수받은 인생의 지혜를 고스란히 담았다. 스스로 원하는 성공을 정의하고 후회 없는 만족스런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실용적이며 실질적인 조언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